

홍콩 유일의 환경보호산업 전시회

홍콩 Eco Expo Asia



녹색제품 및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

2011년 초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대규모 원전 반대시위가 일어났으며 독일은 자국 내 17개 원전 중 8개를 영구 폐쇄하면서 탈 원전 계획을 선언하였다. 일본 원전사고 발생 이후 대체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증폭한 것이다.

녹색 계획 추진하는 중국의 포부, 시민의식도 높아져

중국 역시 중국은 2011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의 일부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과거 발전 계획에서도 에너지, 탄소 배출 절감 목표가 있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12차 5개년 계획부터는(2011년 1월~) 에너지 및 탄소배출 절감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11차 5개년 계획 대비 에너지소비 16% 절감, 탄소배출 17% 감축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광저우, 선전, 포산 등 도시는 거주지역과 연계한 친환경 클러스터 기반의 그린 시티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재생 에너지 업체들도 중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소비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그린산업의 긍정적 미래를 점쳐보게 한다. 홍콩무역발전국이 2011년 10월 25일 발표한 중국의 녹색 소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지난 1년 내 녹색상품을 사용한 경험 이 있다고 답했다. 66%는 녹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구매 트렌드가 됐다고 응답하였다. 녹색상품 중에서도 영유아 상품, 유기농식품, 그린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TOP3 제품군으로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 상품, 유기농 식품은 가족 건강이 관련되는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이에 대한 더 확실한 인증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시티관련 전시(좌: 친환경 도시계획, 우: 태양열 패널)



출처 : KOTRA 홍콩무역관

유명인증업체 전시 참가부스 모습(좌: SGS, 우: BSI)



출처 : KOTRA 홍콩무역관

2011 Eco Expo Asia, 참가 기업 이모저모

2006년도부터 홍콩에서 개최되어 온 에코 엑스포 아시아가 2011년 제 6회를 맞았다. 2011년 홍콩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1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266개 업체 참가업체와 8,000명 이상의 바이어의 방문 속에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전시회의 테마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녹색기술’로 전시회는 크게 6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폐기물과 재활용, 친환경제품, 녹색건축 솔루션 및 서비스, 녹색 교통, 테스트 및 인증서비스의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워런 버핏이 18억 홍콩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BYD는 이번 전시회에서 eBus-12 전기버스 및 e6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고 중국 광저우시 환경보호국 국장 뤼스위안(羅思源)이 직접 방문해 전기자동차 내부를 살펴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BYD는 마지막 날인 29일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Tesla와 함께 시승행사를 진행하였다.

BYD 부스(좌: BYD 부스 전경, 우: 뤼스위안 국장 방문)



출처 : KOTRA 홍콩무역관

Synergy 그룹(匯能集團)의 절전형 에어컨은 홍콩환경국 국장 에드워드 야우(邱騰華, Edward Yau Tang-wah, JP)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홍콩의 전기 수요에서 냉방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에어컨 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만 DAAI 그룹(大愛感恩科技)의 페트병 재활용 기술은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이는 버려진 페트병에서 섬유직물을 뽑아내어 의류, 수건, 쇼핑백 등의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DAAI 그룹 영업부 황멍로우(黃夢柔)의 말대로 ‘DDAI에게 페트병은 쓰레기가 아니라 황금’인 듯하다.

한국 업체 중에서는 과학기술분석센터(Scientec Lab Center)의 악취 측정 및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수설비 업체 OSMIOSIS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동양의 매직 정수기가 관심을 끌었다.

환경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큰 관심, 그린라벨 중요해질 듯

중국 정부는 친환경 산업 양성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산업에 100억 위안을 투자해 2020년까지 전국에 400만 대 이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운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통한 이번 전시회의 후원 역시 이러한 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지지로 볼 수 있다.

향후 중국과 홍콩에서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친환경제품 구매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콩에서는 친환경 제품 인증마크인 그린라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콩의 친환경제품 인증마크인 그린 라벨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와 기술 패널(Technical Panel)의 감독과 협조 하에 운영되는 Green Council의 인증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홍콩의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가 크므로 Green Label 인증 통과가 중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라벨 마크



출처 : KOTRA 홍콩무역관